‘채용비리 터널’ 벗어난 금융권, 4000명 일자리 큰 장

〈하반기〉

당국, 채용비리 검사 확대 안해
4대은행 채용규모 2350명 전망
제2금융권도 채용방식 바꿔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현장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채용비리에 주춤하던 금융권이 대규모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데다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끝으로 검사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채용규모는 2350명으로 지난해(1825명)보다 400명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은행과 농협, 제2금융권까지 합하면 4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 금융권에선 대규모 채용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KB금융그룹은 올해 은행, 보험, 카드 등 계열사에서 총 1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500명)보다 20% 증가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6월께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절차를 먼저 시작한다. 9월에는 대졸 신입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동기 대비 27% 증가한 7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상반기에 20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550명을 뽑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채용규모(80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신입 300명을 채용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입사원서를 받을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작년(150명) 이상의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4대 시중은행 모두 채용인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꼽히는 금융권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지난해보다 늘어난 채용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권은 새 정부 들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채용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필기시험 도입 등을 담은 채용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채용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우려를 막고자 대다수의 은행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고시’ 부활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하반기부터 필기시험과 직무적합도 면접 전형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직무적합도 면접은 은행내부평가자와 외부 전문기관이 면접평가를 진행해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기존 채용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신협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채용방식을 진행한다. 지역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근무조건 등은 신협중앙회에서 결정한다. 또 지원자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전형 결과 점수 및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제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A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 예정됐던 신입행원 채용이 채용비리 문제로 자제되다 하반기에 다시 풀릴 전망”이라며 “채용비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국내 재보험 시장, 규모 ⬆ 수익성 ⬇

거래규모 22.3兆 전년比 8.1% 증가

지난해 국내 재보험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수익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다르면 2017년 국내 재보험 거래규모는 22조3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재보험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위험관리를 위해 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이다. 보험사를 위한 보험인 셈이다. 국내에서는 코리안리와 9개 외국사 국내 지점이 전업 재보험사로 있다.

재보험을 받은 보험료(수재보험료)는 10조2791억원,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료(출재보험료)는 12조1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8.1%씩 늘었다.

수재보험료는 장기·자동차·생명 등의 종목을 중심으로, 출재보험료는 중소형 보험사의 장기·자동차 등 종목 중심으로 늘었다.

국내외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收支差)는 -4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국내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가 -453억원, 해외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가 -4188억원이다. 미국 허리케인(Harvey·Irma·Maria), 홍콩 태풍(Hato) 등 자연재해로 재보험금 지급이 늘었다.

지난해 국내 전업 재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17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감소했다.

보험영업이익은 장기·생명 등 종목의 수재보험료가 늘면서 전년 대비 23.3% 늘었다. 그러나 투자이익이 78.1% 급감했다. 원화 강세에 외화환산손실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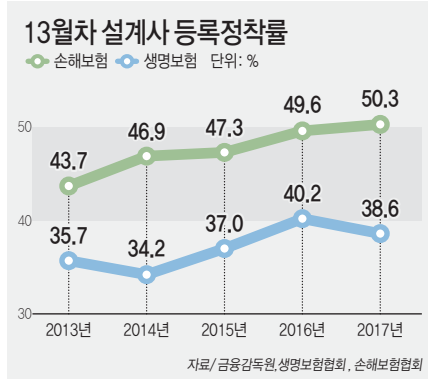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수지차 적자는 고액 기업성 일반보험 물건의 국제적 리스크 분산 등을 위한 해외출재가 주된 원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보험사의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등 손익구조 선진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떠돌이 설계사의 그늘 ‘고아계약’ 주의보

〈보험〉

설계사 관리 소홀로 유지·관리 부실
정착률 생보 ‘38.6%’ 손보 ‘50.3%’



최근 설계사의 잦은 이직 또는 관리 소홀로 보험계약상품 유지·관리가 부실해진 이른바 ‘고아계약’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연 연구원이 20일 게재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유지관리서비스의 중요성’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신규 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 38.6%, 손해보험 50.3%에 그쳤다.

등록설계사 중 이직 목적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을 말소한 자의 비중은 지난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40%를 상회한다.

안철경 선임은 “고아계약은 보험계약 기관과 설계사 근속 기간의 차이로 발생한다”며 “보험계약은 장기인데 반해 설계사들이 단기간 근속 후 퇴직 또는 잦은 이직으로 관리자가 부재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유지관리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설계사들의 근로활동 중단 외에도 채널 간 수당체계의 차이나 영업상 애로사항 등 해소를 위해 발생하는 잦은 이직으로 고아계약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수료가 높은 GA채널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설계사의 이직 경험을 조사한 결과 GA소속 설계사의 1회 이상 이직 비율은 지난 2011년 87.8%에서 2016년 55.3%로 나타났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는 감소하는 반면 GA소속 설계사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전체 설계사 중 GA소속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53.6%에 이르고 있다.

안 선임은 “GA와 같은 판매조직 역시 소비자중심경영 차원에서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 설정, 체계적인 관리자 배정, 양질의 유지관리서비스 제공, 고아계약 관리 교육 등을 위해 별도의 센터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본사에서 지점 또는 판매조직(설계사)에 고아계약을 배정(매칭)할 때 보험계약(고객군) 및 판매조직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동지침이나 마케팅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도 불완전판매나 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보험계약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정의) 설정 및 관리지표 개발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공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이창기 NH농협은행 디지털전략부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 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원구원장, 주재승 NH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과 범농협 직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 치한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서울대 빅데이터 분석 과정 입교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빅데이터 분석과정 개설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에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 2기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 과정 2기는 지난해 농협은행과 서울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및 관련 산업의 연구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를 맺은 후 두 번째로 개설되는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농협은행 소속 직원 33명과 범농협 직원 10명을 포함한 총 43명이 수강 신청을 했으며, 빅데이터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분석기법 실습을 통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저렴한 치매보험, 가입해도 괜찮나요?

금감원 Q&A

Q 요새 치매환자가 많아져서 저도 치매보장상품을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다고 비싼 보험은 가입하기 부담돼서 가급적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인 보험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A.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및 종신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치매보장상품 중 ‘중증치매’만 보장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상미 기자

KEB하나은행

VIP 초청 자산관리 콘서트

KEB하나은행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 18일 서울 대치동 소재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손님 220명을 초청해 ‘VIP 초청 자산관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산관리 콘서트는 자산관리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 이어 문화공연 순서까지 마련돼 고객에게 유익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KEB하나은행의 경영목표가 ‘손님의 행복’이다”며,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으로 오랜 기간 거래해 주신 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한 차원 높은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